

국무총리 모두말씀

- 제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, 7.13(목) -

[1] 안전대책 현장에서 이행되어야

- 지난 주 이 회의를 가졌던 게 7월 6일 이었음. 그날은 교통안전을 포함한 국민안전대책을 점검했었는데, 점검한지 사흘 만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났음
 - 안전대책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주었던 일이었음
- 정부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겠음
 - 교통문제인데, 사실은 대한민국의 교통문화가 늘 나쁜 거 같지만 그렇지는 않음. 중간에 교통안전공단이 생겨서 범정부적으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고, 효과가 있었음
 - 통계로 보면, 자동차 대중화가 본격화 된 게 1978년 무렵인데, 78년부터 지금까지 등록차량이 60배로 늘었음. 그런데 작년에는 78년 이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적어진 해임. 말하자면 우리의 교통문화 향상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음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야할 과제는 많고 우리 교통문화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임
-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졸음운전, 과속운전, 과적운전을 끝냈으면 좋겠고 신호 지키기, 정지선 지키기 같은 기본적인 교통문화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면 좋겠음
 - 관련부처가 좀 더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

[2] 안건 관련

- 오늘 회의는 정부 입장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렸으면 함

① 군산조선소 관련

- 수년 전부터 시작된 조선업의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미 울산, 거제, 통영, 목포 등에서 실업자의 대량 발생, 협력 업체들의 폐업,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같은 지역경제의 타격이 연달아 일어났음
 - 그런데 7월 1일 부터는 군산조선소 마저 가동이 중단돼서 현지 주민들이 대단한 고통을 겪고 계시고, 저 또한 몹시 안타까움.
 - 군산은 조선관련 산업이 고용의 24%를 차지하고 있음. 이런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에 들어감에 따라서 지역의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고, 군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음
-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은 조선업 불황에 직면한 기업의 구조조정이고 정부는 이미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,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면서, 지역 주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해 온 것이 사실임

- 먼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더 연장해서 근로자 고용유지와 자영업자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몇 가지 조치를 우선 취한 바 있음
 - 또한, 지난 3일 저의 지시에 따라서 관계부처가 종합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고, 전북지역을 방문해 수렴한 의견도 대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듣고 있음
- 오늘 논의되는 대책이 현지의 상실감과 타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,
 - 관련부처는 시간을 좀 더 드릴테니, 더 고심하고 노력해서 군산은 물론이고 전라북도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광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음

②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 관련

-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는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책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임
 - 지금 당면한 과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역사 교육을 바로 잡는 것임
 - 그러나 정책의 선택은 늘 여러 가지 모순되는 요구를 한꺼번에 받게 돼있음. 현재로서는 정책변화로 인한 혼란이나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역사 교육을 바로잡아 가는 조화점을 찾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함
 -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정역사교과서 적용시기와 새로운 집필기준 등을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

③ 100원 택시 확대 방안 관련

- 100원 택시는 충남 온양에서 시작됐던 것을 제가 도지사 선거에 임하면서 전라남도 전체에 적용하는 공약으로 발표했고, 이미 전라남도의 모든 시군이 이것을 시행하고 있음
 -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음. 시장, 군수님들도 앞 다투어 이 정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, 도의원 군의원들도 굉장히 이 정책에 협조적임
 - 그 내용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, 벽지에 사는 주민들께서 택시를 부르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까지 100원에 모셔 드리고 그 지방자치단체, 도와 시·군이 보전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만, 막상 시행해보니 버스 정류장까지가 아니라 읍면소재지 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시군도 있고, 택시 운전사들에 따라서는 100원도 안 받아 버리는 그런 곳도 생기고 있음
 - 그런 오지, 벽지에 억지로 버스를 다니게 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 보다는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은 저의 경험임
- 오늘은 100원 택시 사업의 전국 확대에 앞서,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해 봤으면 함
 - 아무쪼록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추진방안이 무엇인지 지혜가 도출되기 바람